

태고종 신협 부실대출로 파산 위기

무리한 주식투자 등 10억원 손실·영업정지로 금감위 관리

“예금공사 실사후 임직원 민·형사 책임 물을수도”

불교계 신협의 선주주자로 16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태고종 신협(신협)은 조립이사장 인국, 이하 신협이 지난 5일자로 영업정지를 당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신협은 2003년 2월 4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의 관리를 받게 돼, 예탁금 및 적금을 포함한 조합의 모든 채무의 지급 및 이사장을 포함한 전임 직원의 직무가 정지됐다.

영업정지는 신협 중앙회의 자체 감사에서 부실대출과 불법주식투자 부분이 적발됨으로써 야기됐다. 즉 IMF 이후 회원들에게 대출해 준 금액이 회수가 잘 안돼, 99년부터 회원들에게 이익금 배당이 전무한 것을 비롯, 부실대출과 관련 4억 원 정도

의 손실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런 경영상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자기자본(40억)비율의 30% 이상 주식투자가 금지되어 있는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2000년 8월부터 코스닥에 무리한 주식투자를 하는 등, 총 10억원 정도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신협의 방만한 경영과, 경영 미숙, 최근 금융권의 대형화 등이 영업정지의 주된 이유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예금보험공사의 한 관계자는 “사건이지만 현재로서는 신협 자체의 경영정상화나 인수·합병 등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해 실사가 끝나는 대로 최종 파산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경영정상화가 불가능 할 경우 영업정지일로부터 최소한 3개월 뒤,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회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 현재 5천만원 이상 출자한 회원은 2명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건으로 회원들이 큰 피해는 입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 한 관계자는 “9월 초까지 예금보험공사의 실사가 끝나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인국 스님과 실무자였던 백우 스님 등, 임원진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도 뒤따를 수도 있다”고 말해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서울 중로구 필운동에 소재한 태고종 신협중앙회 사무실.

태고종 신협은 1986년 종도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출범, 현재 970명 정도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남동우 기자 dwname@budhapa.com

‘불교와 인류의 미래’ 주제

31일 불교협회회장 강연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백원기)는 오는 31일 오후 2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호주불교협회 회장이며, WFB(세계 불교도총회) 집행위원인 그레엄 라이일(Mr. Graeme Lyall) 경을 초청, ‘불교와 인류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은 불교에 대한 서구세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 불교의 현황과 전망을 조명해 보고, 차후 국제포교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한국불교를 서구사회에 접근시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모색코자 마련됐다.

뉴 사우스 웨일즈주와 퀸즈랜드주의 불교협회 회장 등을 겸하고 있는 라이일씨는 오는 28일 조선대에서도 강연할 예정. 지난 90년 세계불교도 우의회 제17차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한 바 있는 라이일씨는 25일 입국해 31일 출국한다. (02)722-2206

김재경 기자

직지사앞 음식점 건축허가 취소

김천시, 문제토지 사들여 문화공간 조성

경북 김천시가 직지사 산문앞에 내렸던 음식점 건축 허가를 다시 취소했다.

김천시는 건축주 박 모 씨가 직지사 산문앞에 짓고 있는 음식점 용도의 2층 건물에 대해 전통사찰 보전과 시민휴식공간 차원에서 허가를 취소했다고 9일 밝혔다.

김천시는 지난 98년 이 건물에 대해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했다가 정지시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법조항

이 삭제되면서 다음해에 결국 허가를 내줬다. 이에 따라 직지사는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김천시는 문제의 토지를 강제로 사들여 주변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직지사는 그동안 산문앞 음식점 건축이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호국불교의 정신을 명멸게 하는 훼손행위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김재경 기자

인파견 자원봉사자 결핵전문교육

JTS, 대한결핵협회 협조언어 3주간

주지인 ‘등계소외’ 지역에 지바 카병원을 설립해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외래진료 외에 특별사업으로서 ‘결핵퇴치사업’을 벌여왔다.

JTS가 결핵퇴치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을 확보하고자 대한결핵협회로 교육요청을

했고, 대한결핵협회 산하 결핵연구원이 요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원활동가들을 위한 새로운 결핵 전문 교육과정이 개설됐다.

대한결핵협회는 JTS의 인도 현지 결핵프로그램이 시작된 초기단계에서부터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

인도 보드카야=김동훈 통신원

천태종 수해성금 전달

천태종총무원장 은택은 13일, 최근 큰 비로 수해를 입은 수재민을 위한 성금으로 KBS에 1500만원, MBC 1500만원씩 각각 전달했다. 천태종은 이후에도 각 말사별로 수재의연금을 모금,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천태종은 10일에도 서해교전 희생자 유족들에게 위로성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이경숙 기자

첫 ‘오방헌공다례’ 봉행

서울 봉은사가 15일 제1회 연화차 오방헌공다례’를 봉행했다.

칠월칠석과 8.15 광복절을 맞아 일체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기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국다도회회가 참여해 오방헌공다례를 직접 시연했다. 봉은사는 또 이번 다례를 계기로 다도문화 활성화를 위해 9월 7일부터 ‘봉은 다도반’ 개설 운영한다.

한명우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밤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본가는 인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서울 종로구 단, 9월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풍창동 45번지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bokbat@kornet.net

마스터 / 워저드 김희균

23일 우란분절... 불교 ‘효의 날’ 사찰들 다채로운 행사

오는 23일(음력 7월15일)은 불교의 ‘효’의 날인 우란분절이다. 부처님오신날, 출가일, 열반일, 성도일과 함께 불교 5대절경 가운데 하나인 이날, 전국 각 사찰에서는 스님들의 수행력으로 조상 및 부모의 극락왕생과 불보살의 가피를 기원하는 법회를 봉행한다.

부산 삼광사는 우란분절을 맞아 서화 전시회와 연극공연을 선보인다. 21일~23일 지관전 금강불교대학 강의실에서 열리는 제2회 서화 전시회에는 정관스님, 종학스님, 정여스님 등 스님들의 서화와 부산경남 중전 서예가들의 작품 40여 점이 선보인다. 또한 21일, 22일 지관전 불교문화관에서 공연되는

봉선사 신도회 사중스님들에 사은회
삼광사 서화전시·연극 ‘목련존자’ 공연
봉은사 생명해방 대축제·문화행사도

당일 의미있는 행사를 마련, 생명해방의 본래 의미를 되새기는 법회를 준비중이다.

남양주 봉선사신도회는 스님들의 가르침에 보답하기 위해 신도단체 대표와 신도들이 사중 스님들에게 삼배를 올리고 공양물을 올리는 사은회(謝恩會)를 연다. 이후 영가전도 법회를 봉행, 우란분절 본래의 의미를 부각시킬 예정이다. (031)527-5974

극단 연희단거리패의 ‘목련존자’는 새롭게 각색된 목련존자의 구모(敎母)이야기를 통해 부모의 은혜와 우란분절의 본뜻을 되새기는 무대로 꾸며진다. (051)808-7111

서울 봉은사는 제5회 ‘생명해방 대축제’를 봉행한다. 축제에서는 영산재를 비롯해 진흥무, 경기민요, 육법공양 등 각종 문화행사를 펼친다. (02)545-1448

김재경·천미희 기자



◇영불만일회 5차년도 성지대회가 5-7일 해남 미항사에서 400여 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열렸다.

하루 1만 번의 ‘나무아미타불’ 염송, 남북통일과 국제인간을 염원하는 영불만일회가 5일부터 7일까지 2박3일간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해남 미항사에서 5차년도 성지대회를 가졌다.

전국영불만일회(회장 김재일) 주관으로 열린 영불만일 결사에서는 동산불교대학 우리총회와 재학생들의 아미타춤 공양을 비롯해 호마천

미항사에서 영불만일대회 아미타춤공양 등 행사도

도악 시현, 아미타춤 대동제, 한글의식을 통한 저녁장엄예불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특히, ‘영불만일 다짐대회’에서 전남 곡성 성륜사 조실 정화 스님은 ‘염불과 선은 하나임’을 강조하고

서서해교전 희생자들의 49재 회향 법회를 봉행했다. 이와 함께 해군 군법당에서만 진행해 온 위령추모제를 전국 군법당으로 확대 실시하고, 회

장자들의 넋을 기렸다. 49재 회향법회에서는 유가족들에게 전국 군법당에서 모금된 위문금을 전달했다. 박병영 기자

최면 수련생 모집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최면-전생을 통하여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보십시오.
전생(前世)의 문을 열면 당신의 부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강의 내용

- ① 타인최면유도
- ② 최면으로 하는 제령(際靈)
- ③ 원격최면
- ④ 전생 퇴행 최면
- ⑤ 파동(波動)요법

법운 선생님의 약력

- 동래고등학교 졸업
- 안양대학교 졸업
- '97년 PSB 아침 특종뉴스 출연 (송명희)
- '98년 PSB 출발세 아침 출연 (관상익)
- 대한 조능력협회 회원
- 동방 최면전생 연구소 소장
- 세계아미포 기공회의 회장
- 연·삼경그룹 교원으로 재직

점(占)과 철학으로 사람의 운명을 상담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최면-전생 요법으로 당신의 전생과 미래의 삶의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인생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영혼의 완성을 위한 배움터 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각각의 전생의 카르마(業)에 의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정되어져 있는 영혼의 프로그램을 최면전생을 통하여 확인하십시오.

◆ 강의시간 : 주 3시간, 3개월 과정
◆ 문의처 : (051)806-8500, (051)817-6156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 저서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다.'

한국산 가시오가피의 대명사

함박재 종 가시오가피

■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시킨 함박재 농장!

함박재농장은 멸종위기에 처해 보호야생식물(자연환경보전법 제2조)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희귀한 가시오가피 대량재배(10만평, 50만주)에 성공하였습니다.

-KBS, MBC뉴스에 보도 됨-

■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상품력과 기술력, 그리고 QM시스템 구축도 및 활용도를 심사받아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 제 2076호로 선정 되었습니다.

■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20여년간 가시오가피 살리기에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제품구입시 가시오가피와 일반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 100% 국내산 가시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 지금 전화주시면 가시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전화상담 및 구입문의
TEL : (02)2272-4900

www.ogapiland.co.kr